

롯데케미칼, 스탠다드 에너지 650억 투자

바나듐이온 배터리 기술력 확보... ESS 시장 진출 본격화

지분 15% 확보, 2대주주 등극
양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검토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 대비”

롯데케미칼이 바나듐이온의 에너지 시스템(ESS)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선다.

ESS는 전기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에 맞춰 공급하는 것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6.6기가 와트에서 2023년 90기가 와트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다른 경쟁 국가보다 ESS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포르투갈, 영국 등 ESS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바나듐이온 배터리 제조업체 스탠다드 에너지에 약 650억 원을 투자하며 ESS 시장 공략에 나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내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인 EC와 DMC 생산시설 건설 등 고기능·배터리 소재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진은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스니다. 롯데케미칼은 스탠다드 에너지의 지분 1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와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약체결식을 열어

양사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이후 지분 투자 방식, 협력방안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투자 금액 등을 결정지었다. 롯데케미칼이 투자한 스탠다드 에너지는 KAIST와 미국 MIT 연구진이 2013년 설립한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개발

한 연구 제조 업체이다.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서,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고효율·고출력이 가능하며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1년부터 바나듐, 아연·연속전지 등 ESS용 2차전지 소재를 연구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바나듐이온 배터리용 전해액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전략적 시너지 확대는 물론 롯데그룹 및 롯데케미칼의 국내 외 거점망을 활용한 전기차(EV)충전소, UAM(도심항공교통)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도 확대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사회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안전하게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롯데케미칼은 탄소 중립, 수소 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선진 기술 기업에 선제적인 투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기존 석화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고기능·배터리 소재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21년 5월 약 210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산공장 내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인 EC와 DMC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배터리 주요 4대 소재(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의 하나인 분리막 소재 사업을 2025년 10만톤, 2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철강사 최초 'VBA' 합류

철강업 ESG 글로벌 표준모델 만든다

ESG 글로벌 표준 개발과정 참여
ISSB 공시 기준 제정 등 선제 대응

포스코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해 설립된 VBA(Value Balancing Alliance)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VBA는 2019년 출범한 글로벌 기업 연합체로 ESG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는 글로벌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한다.

VBA는 유럽연합(EU)이 기업 활동의 환경 영향을 측정·공시하는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녹색회계프로젝트'를 수주해 수행하는 등 ESG 표준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단계로 평가

받고 있다.

의장사인 독일의 바스프를 비롯해 BMW, 보쉬, SK 등 24개 글로벌 기업들이 VBA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포스코가 철강사로 세계 최초로 VBA에 합류했다.

포스코는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후 2019년부터 기업시민 실천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용 ▲수익 ▲탄소배출량 ▲탄소감축 성과 4가지 관점에서 환경과 기업 활동이 상호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개발했고, 생산공정 별 탄소 배출량과 친환경 철강제품의 탄소 저감 성과를 분석,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포스코는 VBA 가입을 통해 ESG 글로벌 표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VBA 측정체계 및 방법론을 토대로 기업시민가치 측정체계를 정교화해 향후 철강업의 글로벌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VB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ESG 표준 수립 관련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제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가 7일 디자인과 편의성을 강화한 물결레 전용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M9 오브제컬렉션' 출시

LG전자가 7일 디자인과 편의성을 강화한 물결레 전용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M9 오브제컬렉션'을 출시했다. LG 코드제로 M9 오브제컬렉션은 집안 전체 인테리어와 어울리도록 전문가가 엄선한 오브제컬렉션 컬러인 카밍 베이지, 카밍 그린을 적용했다. /LG전자

넥슨, AGBO 스튜디오에 4억弗 투자

지분 38% 확보, 자체 IP 확장 가속

넥슨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루소 형제와 프로듀서 마이크 라로카가 설립한 AGBO 스튜디오에 4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넥슨은 영화 및 TV 분야에서 자체·신규 IP(지적재산권)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AGBO는 제작력 강화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T '안심 인터넷' 요금제 출시

KT는 온라인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신규 인터넷 요금제 '안심 인터넷'을 7일 출시한다.

안심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에 악성코드 자동 차단 기능을 더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는 은닉 사이트와 악성코드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번 투자는 넥슨 최고전략책임자(CSO)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베테랑인 닉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이 이끄는 넥슨 필름&텔레비전 조직이 주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최대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 투자로 AGBO의 지분을 38%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인 AGBO 경영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단일투자자가 된다.

/채윤정 기자

'C&C(Command & Control) 서버'를 이종으로 막는 강력한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다.

KT는 안심 인터넷 고객에게 'KT안심박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KT안심박스는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앱(App.) 별로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유해물의 접속을 차단 설정하는 서비스다.

/채윤정 기자

KT, 5G 기지국 멀티벤더 상호연동 성공

일 NTT도코모·후지쯔와
Open RAN 테스트베드 구축

KT가 일본 NTT도코모(NTT DOCOMO), 후지쯔(Fujitsu)와 5G 기지국 장비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테스트베드를 서울 KT 융합기술원에 구축하고 개방형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의 멀티벤더 상호연동 시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Open RAN은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프론트홀 인터페이스로, 4세대 이동통신(4G)보다 더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5G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KT는 NTT도코모에서 세계 최초로

Open RAN 기반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지쯔의 5G 기지국을 Open RAN 테스트베드에 도입해 멀티벤더 연동 시험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KT는 자체 개발한 개방형 5G 기지국 장비를 후지쯔의 5G 장비와 연동해 상호 운용성 검증을 완료하고 가입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발신한 신호를 기지국을 거쳐 코어망까지 전달하는 종단간 연결도 시험에도 지난 10월 말에 성공했다.

KT는 Open RAN 테스트베드 구축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가상화 기지국(vRAN) 등 현재보다 더욱 진화된 Open RAN 기술 개발을 위해 NTT도코모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대우조선해양 LNG 2척 5021억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새해 첫 주에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5021억 원에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선박들은 육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 40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이중연료 추진엔진(ME-GI)과 더욱 고도화된 재역화설비(GMS)가 탑재돼 온실가스 주범인 메탄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양성운 기자